



### 학생의 날입니다

1986년 10월 28일은 학생의 날입니다. 학생의 날이란 1980년 10월 28일 학생들의 투쟁을 기념하여 제정된 날입니다. 학생의 날은 학생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학생들의 자아실현을 도모하며, 학생들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학생의 날은 학생들의 자아실현을 위한 날입니다. 학생들은 사회의 미래를 담당하는 인재로 성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업뿐만 아니라 인성교육, 사회봉사, 체육활동 등을 통해 종합적인 인재를 길러내고 있습니다.

학생의 날은 학생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날입니다. 학생들은 학업 부담, 취업난, 사회적 차별 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권익을 옹호하고, 사회적 불의를 바로잡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날은 학생들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날입니다. 학생들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업뿐만 아니라 사회봉사, 자원봉사 등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현대·민주주의의 고찰

현대·민주주의의 고찰은 현대사회의 변화와 민주주의의 본질을 탐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대사회는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달과 산업혁명의 진행으로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민주주의의 본질과 실천에 대한 새로운 고찰을 요구한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보장하는 정치체제이다. 민주주의는 권력의 분립과 시민의 참여를 통해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한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권력집중과 시민의 무관심이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

현대·민주주의의 고찰은 민주주의의 본질을 재확인하고, 현대사회의 변화에 맞는 민주주의의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권력분립의 강화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 西洋수학의 礎石은 東洋수학



동양수학은 서양수학의 기초가 되었다. 동양수학의 발달은 서양수학의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동양수학의 연구는 서양수학의 기초를 다졌고, 서양수학의 발전은 동양수학의 연구를 촉진했다.

동양수학의 연구는 서양수학의 기초를 다졌고, 서양수학의 발전은 동양수학의 연구를 촉진했다. 동양수학의 연구는 서양수학의 기초를 다졌고, 서양수학의 발전은 동양수학의 연구를 촉진했다.

## 현재 쓰는 십진법은 印度에서 발명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십진법은 인도에서 발명되었다. 십진법은 인간의 생활에 편리하며, 과학기술의 발달에 크게 공헌했다. 십진법의 연구는 인도의 수학자들에게서 시작되었다.



인도의 수학자 브라흐마굽타의 십진법 발명에 대한 기록이 새겨진 석판의 일부분이다.

인도의 수학자 브라흐마굽타는 십진법을 발명했다. 그는 십진법을 인간의 생활에 편리하며, 과학기술의 발달에 크게 공헌했다. 그의 연구는 인도의 수학자들에게서 시작되었다.

### 大學의 祝祭

대학의 祝祭는 대학의 전통과 역사를 기념하는 중요한 행사이다. 대학의 祝祭는 학생들의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대학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학의 祝祭는 학생들의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대학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학의 祝祭는 학생들의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대학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학의 祝祭에 관한 글의 저자이다.

## 三星

세계42위의 三星, 당신에게 그 미래를 말합니다.

첨단기술, 첨단경영의 상징 - 三星

삼우를 향한 우리의 꿈, 이 미래의 꿈을 함께 이루십시오.

첨단기술, 첨단경영의 상징 - 三星

삼우를 향한 우리의 꿈, 이 미래의 꿈을 함께 이루십시오.

삼우를 향한 우리의 꿈, 이 미래의 꿈을 함께 이루십시오.

삼우를 향한 우리의 꿈, 이 미래의 꿈을 함께 이루십시오.

삼우를 향한 우리의 꿈, 이 미래의 꿈을 함께 이루십시오.

삼우를 향한 우리의 꿈, 이 미래의 꿈을 함께 이루십시오.

삼우를 향한 우리의 꿈, 이 미래의 꿈을 함께 이루십시오.

삼우를 향한 우리의 꿈, 이 미래의 꿈을 함께 이루십시오.

삼우를 향한 우리의 꿈, 이 미래의 꿈을 함께 이루십시오.



○..... 1986年10月28日 (火曜日)
○..... 1986年10月28日 (火曜日)
○..... 1986年10月28日 (火曜日)
○..... 1986年10月28日 (火曜日)
○..... 1986年10月28日 (火曜日)
○..... 1986年10月28日 (火曜日)
○..... 1986年10月28日 (火曜日)
○..... 1986年10月28日 (火曜日)
○..... 1986年10月28日 (火曜日)
○..... 1986年10月28日 (火曜日)



朱宗植
<前編> 謝國興(前編)

자본주의체제위기와 전개

資本主義體制危機
資本主義體制은 19세기 말에 시작되어 20세기 초에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위기를 겪고 있다. 이 위기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근본적인 모순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모순은 생산수단의 사유화와 생산물 분배의 불평등에 있다. 이 불평등은 사회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결국에는 체제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다.



현재 세계경제는 1930년대와 흡사한 국제통화전쟁, 국제무역전쟁, 자원과 투자시장에 대한 국제적 쟁탈전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이는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다.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세계경제는 혼합경제체제로 수렴

무역수지적자는 미국과 諸선진국간에 발생
세계경제는 혼합경제체제로 수렴하고 있다. 이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현상이다. 국가들은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는 국제무역전쟁을 초래할 수 있다.

世界資本主義의 展望
세계 자본주의의 전망은 밝지 않다. 자본주의 체제는 여러 가지 모순으로 인하여 위기를 겪고 있다. 이 위기는 체제 자체의 근본적인 모순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모순은 생산수단의 사유화와 생산물 분배의 불평등에 있다.

선유과동후스태그플레이션현상

美 漫성적자와 실업률증대가 보호무역주의 야기
선유과동후스태그플레이션현상은 미국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는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실업률이 증가하는 현상이다. 이는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야기할 수 있다. 이는 국제무역전쟁을 초래할 수 있다.

軍·행정병 모집

육군 참모총장 위촉처
군인으로서의 꿈을 이루고 싶다면, 지금 바로 모집에 응시하십시오. 우리는 우수한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모집 분야는 행정병과 군인입니다. 모집 기간은 1986년 11월 3일부터입니다.

Service Men's Club advertisement. Includes text: "왜 사랑받는가? DISCO의 과거(B.C)로 현재(트렌드)며 미래(유행)이 이 때문이다." and a photo of a man.

Advertisement for My House and other services. Includes text: "선 10 자부심", "김범룡 임병수 김정식", "내와 나의 선배가 낭만과 추억을 남기고 간 디스코 마당."

YMCA advertisement. Includes text: "YMCA TOEFL/New Horizon", "개강 11월 3일", "영어·일본어·중국어", "중·고급해석", "수성반·유학시험 및 대학원시험 대비반"

Accounting course advertisement. Includes text: "會計學 美力", "개강 11월 3일", "중·고급해석", "수성반·유학시험 및 대학원시험 대비반"

Advertisement for a language school. Includes text: "獨文化學院", "개강 11월 3일", "중·고급해석", "수성반·유학시험 및 대학원시험 대비반"

Advertisement for a language school. Includes text: "Asia Language Course", "개강 11월 3일", "중·고급해석", "수성반·유학시험 및 대학원시험 대비반"

Advertisement for a driving school. Includes text: "자동차 중장비 운전병", "본인회합 일자에 지원입대", "군사 교련 해방 특전", "남보다 먼저 병력의무", "필한후 복학에 기회가 됨", "복무년한 일반병과 동일함"

### 1. 부채의 증가

「부채의 증가」는 경제의 발전과 함께 자연스럽게 증가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경제의 발전과 함께 부채의 증가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부채의 증가가 경제의 발전과 함께 부채의 증가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부채의 증가가 경제의 발전과 함께 부채의 증가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부채의 증가가 경제의 발전과 함께 부채의 증가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부채의 증가가 경제의 발전과 함께 부채의 증가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부채의 증가가 경제의 발전과 함께 부채의 증가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부채의 증가가 경제의 발전과 함께 부채의 증가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부채의 증가가 경제의 발전과 함께 부채의 증가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 3低로 은폐된 한국경제의 위기

「韓·美·日 불균형 구조」에 대한 재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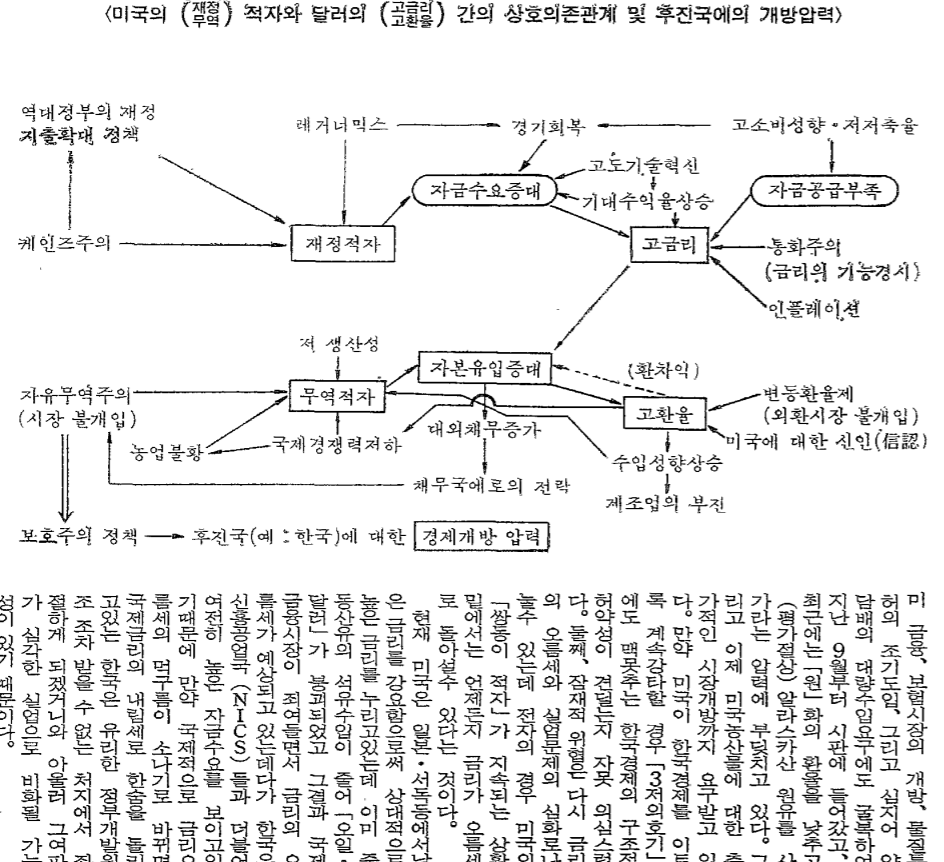


김관문

「美·日·韓 불균형 구조」에 대한 재조명  
 <김관문(한국외대)·김관문>  
 <본문> 1986년 10월 28일 화요일  
 <본문> 1986년 10월 28일 화요일

## 경제문제...정치적 인식통해 극복 美압력에 의한 종속무연구조 개편돼야

경제문제...정치적 인식통해 극복  
 <본문> 1986년 10월 28일 화요일  
 <본문> 1986년 10월 28일 화요일



### 겨울 추위에 서서

겨울 추위에 서서  
 <본문> 1986년 10월 28일 화요일  
 <본문> 1986년 10월 28일 화요일

겨울 추위에 서서  
 <본문> 1986년 10월 28일 화요일  
 <본문> 1986년 10월 28일 화요일

### 3低 현상은 한국경제에 양날 면도로 작용

3低 현상은 한국경제에 양날 면도로 작용  
 <본문> 1986년 10월 28일 화요일  
 <본문> 1986년 10월 28일 화요일

### 4. 결론

4. 결론  
 <본문> 1986년 10월 28일 화요일  
 <본문> 1986년 10월 28일 화요일

# M·A·N·I·T·O

우리만의 아름다움을 갖자. 라피네 마니또 화장품

젊음엔 젊음만의 매력 있다. 젊음만의 꿈, 사랑 그리고 마니또. 「영미스」의 감각과 센스가 선택하는 순한 피부를 위한 순수 화장품 라피네 마니또 스킨케어. 아름다운 칼라로 「영미스」만의 개성을 표현해주는 라피네 마니또 메이크업. 순수하게, 더욱 깨끗하게 우리만의 아름다움을 갖자. 라피네 마니또 화장품.

**라피네 마니또**

이름다운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라피네 화장품

전화문의: 서울 (784) 6593, 서울 (783) 9831-9, 부산 (522) 2525, 전주 (75) 7640-1, 대구 (72) 0332, 대전 (22) 8656, 원주 (42) 0651, 마산 (95) 0016

\*마니또란?  
에인, 친숙, 권위의 뜻을 지닌 스킨케어

\*마니또 놀이  
원주에 권위에서 유래한 것으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가 정말 마니또를 즐기며 아름다움을 보려는 사람의 놀이.

學生의 날 기념특집

다들 우리도 학생들... 1986년 10월 28일 (火曜日) [6]



韓 相 範

한상범 (韓相範)의 생애와 활동에 대한 소개.

이념의 함정에서 인권예멘까지

이념의 함정에서 인권예멘까지... 이념의 함정에서 인권예멘까지...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 민주주의의 발전과 그 과정에 대한 논의.

진정한 民衆의 삶 보장이 그 目標

진정한 民衆의 삶 보장이 그 目標... 진정한 민중의 삶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

통일적 民主力량의 결집이 과제

통일적 民主力량의 결집이 과제... 통일적인 민주적 힘의 결집이 과제.



심정진(심정진)의 연설 모습

심정진(심정진)의 연설 내용 요약 및 관련 기사.

25일 산뜻한 기분! "하루내내 깨끗한 아침기분 팬티라이너로 느껴보세요!"... 유한케미칼의 팬티라이너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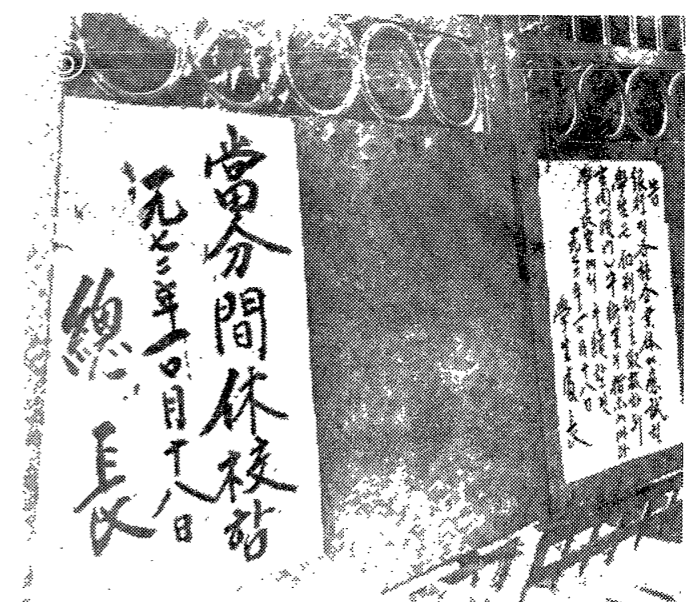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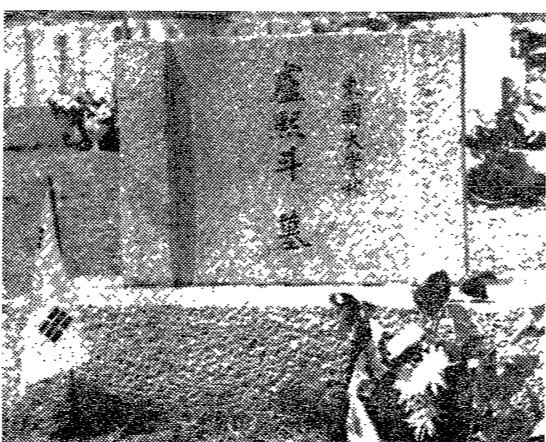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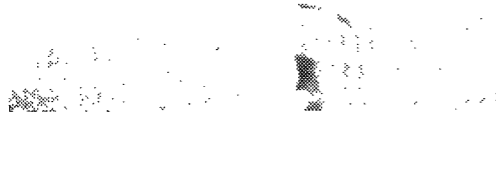


학생운동은 광주학생운동의 맥을 이어 4·19혁명, 유신헌법제정 반대시위등 사회의 모순적 구조를 타파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한국내의 정치·사회적인 제반문제 해결을 위한 끊임없는 학생운동은 이제 새로운 방향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57주년 학생의 날을 맞이하여 본紙에서는 4·19이후의本校 학생운동을 자상전시, 학생운동사의 새로운 이력을 들고자한다.

<편집자주>

# 오 자유여! 오 민주여!

사진으로 보는 4·19이후 本校학생運動史



- ① **학생과 정경들의 대치**  
1986년 10월 13일, 학생들은 정경들의 대치로 인해 학교를 휴교하고, 정경들은 학교를 강제로 개방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정경들의 폭력에 맞서 싸웠고, 정경들은 학생들의 요구를 무시했다.
- ② **4·19 학원계면**  
4·19 혁명 이후, 학원계면은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학생들을 억압했다. 학생들은 학원계면의 폭력에 맞서 싸웠고, 학원계면은 학생들의 요구를 무시했다.
- ③ **4·19 희생자 노획투쟁**  
4·19 혁명 희생자들의 노획투쟁은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학생들을 억압했다. 학생들은 노획투쟁에 맞서 싸웠고, 노획투쟁은 학생들의 요구를 무시했다.
- ④ **10월유신에 따른 후회주의**  
10월유신 이후, 학생들은 후회주의를 표출했다. 학생들은 10월유신을 지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10월유신을 비판했다.
- ⑤ **80년 서울의학시위**  
1980년 서울의학시위는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학생들을 억압했다. 학생들은 의학시위에 맞서 싸웠고, 의학시위는 학생들의 요구를 무시했다.
- ⑥ **대안학교 설립 문제**  
대안학교 설립 문제는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학생들을 억압했다. 학생들은 대안학교 설립에 맞서 싸웠고, 대안학교 설립은 학생들의 요구를 무시했다.

●뷰렌스는 약국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생리식염수로 콘택트렌즈를 세척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생명처럼 소중한 눈(眼) / 콘택트렌즈를 착용하시는 분에게는 렌즈의 손질만큼 조심스럽고 소중한 일이 어디 있었습니까? 렌즈의 손질을 잘 함으로서 눈의 염증, 각막염, 각막혼탁 등을 미리 예방할 수 있고 렌즈를 편안히 착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별 생각없이 생리식염수를 사용하셨지만 이제부터는 새로운 콘택트렌즈 전문용액 뷰렌스로 바꿔주세요. 오른쪽의 도표를 보시면 뷰렌스를 쓰셔야 할 분명한 이유를 아시게 됩니다. 콘택트렌즈 전문용액 뷰렌스는 눈의 건강을 지켜 드립니다.

내	용	뷰렌스	생리식염수	장 단 점 비 교
처	방	FDA가 공인허사한	생리식염수 0.9%	구미 각국에서는 콘택트렌즈 전문용액만 사용함니다.
일	소	필요없음	염소 또는 화학수독 반드시 필요	콘택트렌즈는 매일 소독해야 합니다. 뷰렌스는 뷰렌스에 4시간이상 담가 두면 염소독이 필요없습니다.
콘택트렌즈에 대한 작용	소독작용	매우좋은	없	생리식염수는 0.9%의 소금물이기 때문에 소독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오랜기간 사용하면 공기 중의 세균이 들어가 세균번식의 우려가 있습니다.
	보존작용	중	부	콘택트렌즈는 높은 염수율을 유지시켜야 하므로 착용하지 않을 때는 용액에 담가 두어야 합니다. 뷰렌스는 세균에 감염되지 않는 깨끗한 용액입니다.
	세척작용	중	중	
PH		7.0 중성	7.0~4.5 산성화 진행	생리식염수는 공기와 접촉시 탄산가스과 접촉하여 산성화 되어 갑니다.
완	충	충	부	뷰렌스는 눈의 염성과 같은 중성입니다. 콘택트렌즈 착용시 눈에 자극이나 해를 주지 않습니다.

열소독이 필요없는 콘택트렌즈 전문용액 **뷰렌스액**

표준소매가격 : 500ml → 2,200원

**중외제약** ●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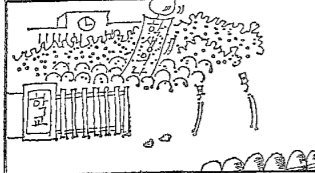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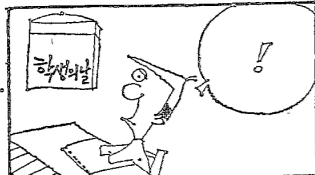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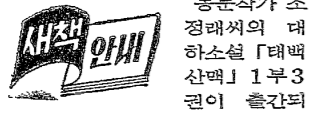
# 여로니

오 랑 <20>



## 태백산맥

趙炳世 著



동문작가 조炳世의 대작소설 「태백산맥」 1부 3권이 출간되었다. 지난 48년 여순반란사건 직후의 상황을 자신이 어떻게 겪은 쓰라린 경험을 토대로 엮어낸 하나의 방대한 인간드라마로 연출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번이 간행된 1부 시작으로 원고지 1만 5천매분량의 총 4부를 끌어갈 계획이다. <한길사刊> 총 945면·각권 3,000원

## 니체와 현대철학

姜大石 著

기존의 니체철학 논문이나 연구서의 문제로 지적되던 니체철학의 성립배경이나 영향관계 연구의 결실을 보완하고 있는 책이 출간되었다. 총 3장으로 세분하여 역설하고 있는 주요 내용은 대부분의 휴머니즘이 위장된 반휴머니즘일 수 있다는 사실에 냉철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길사刊> 304면·3,500원

## 바벨탑의 言語

金炳澤 著

『巴別塔의 言語』 이종으로 출간되었다. 총 3부로 나뉘어 엮여내고 있는 이 책은 제 1부 詩人論에서 한용운의 제 2부에서 作家·作品論에 대해, 제 3부에서는 詩·小說論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문학예술사刊> 314면·4,500원

# "가을새벽" 같은 문체속 따뜻한공간



俞漢根

문학의 언어가 사회적 언어와는 다른 기층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은 글이 로랑바르트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 이제는 문학의 상식이 되어 버린 이야기이다. 문학은 신념의 체계, 지성이라는 인식의 체계를 뛰어 넘는 데에서부터 그 가능성이 찾아진다. 그것이 그것이다. 물론 이러한 견해는 문학의 가능성을 그 작품의 내용(메세지) 보다는 문장(문체)에서 찾으려는 문학적 편견일 수도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문학적 작품을 향유하려는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표현, 주제의 존재성만을 강조하는 단절적 결론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견해는 문학적 언어의 고유성과 자율성

## 이념 초월한 생존의 중요성을 신선하게 표현 사회적언어와 문학언어의 간격 줄이는 계기 마련해

을 명증하게 하는데 공헌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어느 작품이든 소설은 이야기를 통해서 미공간의 형성하기 때문이다. 작가의 의도적인 메시지 전달계획이 있는 혹은 없던간에 상관없이 독자는 일정하게 고정된 의미를 원한다. 일단 독자의 경우에는 감동적인 문학의 언어를 원하기 보다는 의미가 분명한 사회적 언어를 원한다. 그러나 저술자가 아닌 작가는 독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만은 없다. 작가의 소명은 사회적 언어가 요구하는 고정된 의미로부터 일탈하는 새로운 문학 언어 창출에 헌신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의미 언어를 해체하고 새로운 문학적 언어를 창조하여야 하는 소명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소설을 검토하는 자리에서 앞서 글이 이런 문학적 상

식을 재현하는 것은 사회적 언어 차원에 머물러있는 작품들이 현 작단을 장악하고 있어 그 정체성을 우려하고 그것의 극복문제를 다루기 위함이다. 정진주의 <無門山에 가서>(원대문과 10월호)는 이런 점에서 이달에 주목되는 소설이다. 이 소설을 서사적 시간 구조로 볼 때, 수평 구조는 나레이터인 「나」가 해운 스님을 찾아 무문사를 가서 만나는 서사로 되어 있다. 그리고 수직 구조는 몇 개의 삽화를 통해 그 난리(6·25)의 의미, 즉 살아 남기의 방식을 회상적 처리로 구조하고 있다. 그러나 「나」가 소설을 사회적 시각으로 보게 되면 무문사 방문의 서사 구조는 6·25의 의미를 환기하기 보다는 수평구조로 만들어져 「나」와 해운스님의 인연교류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소설 구조의 특색이 우선 기존의 6·25소설에서부터 벗어나고 있어 주목된다. 기존의 소설들이 있어서 구성의 제도적 장치는 메세지 전달에 원용되어 왔다. 의미를 실어 나르기 위한 트릭으로 차용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無門山에 가서」의 수

평의 서사 구조는 수직으로 세워놓은 의미 구조를 전언하기 위한 장치로 구조한 것으로 보아지지 않는다. 상황의 흐름에 따라, 혹은 서술의 흐름에 따라 몇 개의 언어, 예컨대 해운은 얼룩같은 언어를 연립 고리로 해서 연스님을 회상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표현 양식은 정진주의 주목받은 소설 「無門山」의 「겨울날」에서 흔히 시도된 구조이다. 사회적 발언에 유혹된 독자에 있어서 정진주의 이런 소설 구조에는 최초의 가질 것이다. 소설은 메세지를 담는 그릇이어야 한다고 믿는 독자에게는 정진주의 이런 소설 구조는 신봉할 수 없을 것이다. 예컨대 이 소설은 삽화에 따라 몇가지의 의미만을 띠어져 있다. ①해운스님 집안과의 관계를 말하는 난리 때 삽화에서는 군량 위헌장을 지낸 그녀 할아버지와 난세를 카페테

# 이달의 小説

## 無門山에 가서

정찬주 作

은처럼 대처하여 살아온 「나」의 아버지와의 대로를 통해서 사회에 대응하는 인간형의 단면을 제시하고 있고 ②예비군 훈련장에서 무투함을 달래기 위해 깨끗하게 들을 던지는 예비군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무용성을 얘기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파멸적 현상을 노정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소설은 위와같은 사회적 언어를 애써 드러내 보여주려 하지 않는다. 정찬주는 이 소설의 ①의 삽화를 통해 해운 스님과 그의 前代로부터 지속되어온 인연의 끈을 예시하는 한편, 이념을 초월한 생존의 중요성을 가깝게 그려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②의 삽화를 통해서 는 여태와 실이진신상의 불교적 관계 양식의 단면과 불성, 화해의 의미를 환기하기 위한 이야기로 유도한다. 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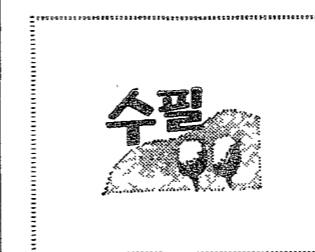
# 친구들이 외치는「민주」란 과연 어떤 것일까

푸른제복 아저씨들이 강의실 앞마당까지 들어오고



## 밤의 斷想

이 미 순 作



속했던 H선배가 학교 안에서 어떤 손에 의해 무참히 끌려갔던 때를 떠올리고 있었다. 스텝이나 짜야 볼 수 있었던 무장한 푸른 제복들이 학생들이 무장하는 강의실 앞마당까지 들어오고, 우리의 강의실이 있는 명진관을 향해 최후탄을 쏘아대던 그때... 손가락이나 무서웠다. 하지만 한편으로 분노를 느꼈다. 그전까지는 그들에게 심한 적대감과 증오심을 품어 볼 수 없었다. 친구들과 얘기한 적이 있었어. 그리고 학생은 역시 학생답게 공부를 해야 돼! 라고 생각했던 푸른 제복들이 유대인을 질식사시켜 죽이는 것처럼

최후탄 카스트 속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곳이 되고 우리의 교정이 제복들에 의해 짓밟히고 있는 것을 보니 너무도 당혹해 「정말 이럴 수 있는가! 이대로 되지는 것인가!」하는 말만이 가슴속에서 울려오며 피물이 되고 있었다. 이번 P군 사건을 들었을 때도 역시 똑같은 불을들이고 그를 듣는다. 발레도 없고 무장도 하지 않은 학생들을 향해 들은 단절 수 있는 것인가? 최후탄을 학생의 머리를 향해 명중시키도 되는 것인가? 이대로 되는 것인가... 짐으로 돌아오는 길에 만원버스에 시달리며 생각해 보았다. 그냥 무심히 지나쳤던 배자보에 무엇이 새겨있는지는 모르지만 과연 「민주」란 어떤 것이며 친구들이 하는 「운동」이란 무엇인가를 「민주」란 말은 듣자 그대로는 배색이 주인이라는 말이다. 한나라가 소수 정치인인 것도, 몇몇 대재벌의 것도 아닌 그 나라에 뿌리 박고 사는 모든 사람의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주인이라면 자기 권리를 당당히 행사하고 큰소리도 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운동」이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자연들은 스스로 운동을 한다. 가까이서 흔히 볼 수 있는 풀을 생각해 보자.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고, 물이 수증기가 되어 증발하여 구름을 만들고, 그 구름이 비를 내리... 단 순히 생각하면 그것은 반칙이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지만 풀은 그 증진과정에서 생명을 유지시키고 만들어 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미 순

<문과대국문과>

## 「월수와 만수」주말공연

오는 12월 28일까지 연우소극장서 극단 연우 부대의 「월수와 만수」 작품이 오는 12월 28일까지로

## 「꿈바」공연

오는 31일까지 크리스탈문화센터 극단 가가의 「꿈바」 작품이 오는 31일까지 크리스탈문화센터(신촌) 부대에서 연정공연된다. 해학과 풍자 뒤에 숨은 우리 민족의 애환을 각설이를 통해 조명한 이번 공연은 하오 4시반, 7시반 하루 2회 공연.

## 「굿판」함마당 강연

내달 3일 그림마당 민에서 민족 문화에서는 제 1회 굿판에 대한 강연회를 내달 16일까지 그림마당 민(인사동)에서 하고 있으며 내달 3일에는 진철송(문과대학교수), 최희의 「굿판」과 민족문화사상에 대한 강연이 있다. 강연시간은 하오 5시.

## 「민족통일대학」강연

내달 1일 천도교 중앙대교당서 천도교중앙총부 부설 민족통일

## 연구회에서는 민족통일대학강좌의 하나로 내달 1일 하오 5시부

터 천도교 중앙대교당(종로구경운동)에서 연사 安浩相의 「민족의 혼과 그 뿌리사상」라는 연재로 강연이 있을 예정이다.

## 일 립

재학생여러분의 참신하고 재치있는 글을 기다립니다 <모집분야> ▲시·평론: 15매내외 ▲시·평론: 8~9매내외 ▲기타: 문학비평(10매내외) ※태권민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문 화 부>

밝은 사회 캠페인 내가 지킨 거리질서, 즐거운 나들이

기술로 세계를 이끄는 KIA MOTORS

1987년을 기다립니다

起亞의 비전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는가?

줄기찬 도전과 집념으로 기계공업에 쏟아온 프로페셔널리즘의 전통을 쌓아오면서 아름다운 미래, 편리한 인간생활을 위해 펼쳐온 起亞의 원대한 꿈이

1987년—드디어 그 베일을 벗고 서서히 나타날 것입니다.

세계시장을 향해서, 편리한 자동차의 대중화를 위해서... 젊음이 함께 어우러지는 일터를 위해서...

起亞産業 KIA MOTORS